

제11회 숭대극회 신입생 환영공연

더러운손

LES MAINS SALES

격려사—



총장 김치선

승실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22년여의 전통을 자랑하는 숭대극회의 신입생 환영 공연에 즐음하여 그들의 노력이 보람되게 거두어지기를 바라는 바랍니다.

현대 실존문학의 거장인 사르트르의 더러운 손은 인간의 실존과 관련된 그의 주장을 극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성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공연과 숭대극회의 계속적인 발전을 빌며
격려사에 갈음하는 바랍니다.

초대의 글—



극회장·기획
백윤현(섬유3)

두개의 계절 속에서 바라본 저녁하늘은 깊도록 눈물을 글썽이게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 이기려는 마음으로 참아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부그leri이 '더러운 손'을 보여 드립니다.
격려 부탁 드리며 다시한번 승실학우가 된 신입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지는 이 순간을 위해 노력한 숭대극회인들에게 그저 미소만 보내렵니다.

더불어 선배님들과 학교 관계자분들의 협조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맛과 멋을 아는 숭실인에게

Royal 스낵

포천 막걸리는 숭실의
입맛을 책임집니다.
상도동 로터리
TEL. 812-8618

숭실인의 보금자리·젊음의 발산장소

맥킨치킨

생·병맥주 및
각종 안주 준비
상도동 강남상가 뒤
TEL. 815-0733

작가 및 작품연구

Jean P. Sartre (1905~1980)는 神은 죽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人間에 对한外的인 속박은 없으며 우주에도 意味가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간은 存在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행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行動의 의무를 벗어나는 길은 삶을 포기함으로써 可能할 뿐이다. 인간은 자신이 결정한 선택에 依해서, 그리고 그가 전형적으로 취하는 行動에 依해서 그自身을 정의하고 創造하며, 또한 그의 세계에 그가 늘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意味를 부과한다. 그러므로 비겁한 方法으로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人間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든 간에 捷장이일 뿐이다. Sartre는 이런 토대 위에서 人間은 이 世上에 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倫理, 社会 哲學을 축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의 The Flies, Dirty Hands等도 마찬가지로 선택, 行動, 윤리적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Sartre의 命題은 인간은 形而上學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도 인간의 行動은 완전히 無責任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行動은 다른 사람에 대해 重要性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자유롭고, 그래서 行動을 하기 마련이지만 그런 자신의 行動에 대해 責任을 가질 의무가 있다고 Sartre는 주장한다.

장 폴 사르트르의 《더러운 손(Les mains)》은 1948년 4월 2일 처음으로 파리 앤트완느 극장에서 상연되었다. 그가 소설보다는 오히려 회곡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며, 이 《더러운 손》은 사르트르의 회곡 중에서도 가장 문제화되었던 작품으로 東구라파의 한 가상국 이리리의 공산주의적 정당의 내분을 둘러싸고, 또한 공산주의의 이상을 동경한 나머지 입당한 한 지식인이 그의 현실의 움직임에 불만을 품고 공산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고, 목적과 수단의 배치 속에서 그의 이상주의에 대한 환멸로 드디어 자기의 이상에 죽어가는 이 회곡의 줄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주위에서 많은 유사한 사건을 찾아본다.

확실히 이 《더러운 손》은 사르트르의 회곡 중에서도 그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표현한 그의 태도, 다시 말하면 정치에 의한 인간의 기계화에 반대하는 그의 태도가 잘 표현되었을뿐만 아니라 소련의 공산주의적 정치와 여하한 파시즘의 정치에도 반대한다는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이 《더러운 손》에서 취급한 문제는 비단 허구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을 우리들의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戰後 현재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연출의 변



연출
박 경 근(전자2)

손이 닿는 것은 죄다 '상실' 이란 이름으로 변한다.
어느 時부터 오늘까지의 알리바이를 죄다 잃어버렸다.
꼬리를 잡히기만하면 꼼짝없이 무기징역감이다.
하루 저녁의 유예를 구하면 어떨까. 그동안 모든걸 기억해낼 수 있을까.
앗!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냈다. 내 알리바이를 묻는 세상에게 되려 다그쳐
묻는거다. 알리바이를 대라고……

사실 이건 내 전법이 아니다.

항상 무대 뒷쪽에서 우리네를 노려보는 눈이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Cast와 이백 조금 안되는 객석을 향해 물을 것이다.
“이봐, 알리바이를 대보시지…”

정통 중국요리 전문점
(CHINESE RESTAURANT)
연래춘
2F
•승전대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맞읍니다.
승전대 학교 앞
TEL. 812-9108

중실中의
중실사진관 (STUDIO)
봉사의 집
•승전대
TEL. 813-2759

CAST



이반·샤를르
오정렬 (사학3)



루이 위성신 (전산3)



에드레드
송기범 (경영4)



올가
류재연 (독문3)



위고
이준석 (기계3)



제시카
황금실 (국문3)



카르스키
이승하 (불문3)



조루주
안선후 (섬유3)



뽀공
권형진 (무역2)



스릿꼬
송근호 (기계1)

STAFF



무대감독
전희식 (산공3)



무대장치
한만용 (전기3)



무대미술
최민구 (화공3)



조명
김창규 (전기3)



분장
왕동미 (사사3)



음향
최정화 (무역2)



소품
송미경 (독문2)



진행
김현순 (독문2)



홍보
박준희 (사사2)

젊은이의 광장

뜨락

2F

•승강대

주간식사
생맥주 전문
143번 종점
TEL. 815-1956

공연을 축하합니다.

충실파워

구내서점

공연연보

回	年 講	作 品 名	演 出
1921년 6 : 13	연홍회 소인극 “절세영웅 나풀해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탈”		
1923년 7 : 7, 21	전한국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제인간” 영옛청년회 주관		
1923년 7 : 28, 29	“소인연극” 고학성후원회 주관		
1	1965년 11 :	“체구으로 돌아오다” 황영석作 이반기희	전진호
2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 : 10	“외자들” 이오네스코作	이태주
4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 : 15	“聖者の 생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명재
6	1970년 10 : 28, 29	“勝負의 終末” 사무엘·辈제트作	김양기
7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진님과 상화” 은별조작 “암벽재복에 헌해서” 안현 - 새총작 “황금단지”(로마극) 푸라우티스작 “고도를 기다리며” 사류영·辈제트작	정종화 주정서 한명재 유근래 차현재
8	1971년 11 : 4, 5, 11	“최격병의 그림자” 산 - 오제이시作	차현재
9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퀸터作	한명재
10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웨렌마트作	고봉인
11	1973년 10 : 25, 26, 27	“여” H. 퀸터作 “기도” (소극장) F. 아라벨작	차현재
12	1974년 5 : 25, 28, 30	“질의의 사람들” (선5학) A. 까뮈作	정종화
1	1975년 3 : 10, 11, 12	“악마와 봄” W. Arwings作 (신입생 환영)	김홍수
13	1975년 6 : 9, 10, 12, 13	“싸울터의 산책” “도스토에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안홍순
14	1975년 10 : 29, 30, 31	“비단과 밤화병” Max. Frish's	안홍순
2	1976년 10 : 29, 30, 31	“보석과 예언” 이강백作 (신입생 환영)	김득남
15	1976년 6 : 1, 2, 3	“인터넷” 장·할로드·반·이엘리作	김득남
16	1976년 10 : 25, 26, 27, 28	“여” 장·할로드·반·이엘리作	김영덕
3	1977년 3 : 16, 17, 18	“출발” 유태성作 (신입생 환영)	안홍순
17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피터·웨퍼作	김영덕
18	1977년 10 : 10, 11, 12, 13	“EQUUS” 피터·웨퍼作	김영덕
19	1978년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作	김영덕
20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웨퍼作	김영덕
4	1979년 3 : 29, 30	“女” 이강백作 (신입생 환영)	김재호
21	1979년 5 : 18, 19	“한강 2979” 김영덕作	이명국
22	1979년 9 : 29, 10 : 2	“초문” 오대석作	황정순
23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락작	박양진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신입생 환영)	오세환
24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웨렌마트作	황정순
25	1981년 11 : 12, 13, 14	“남매이 꽃” 김병종作	황정순
6	1982년 3 : 24, 25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락 PD (신입생 환영)	이용섭
26	1982년 6 : 12, 13	“아리글라” A. 까뮈作	지숙
27	1982년 10 : 7, 8	“해도우 박스” M. 크리스토퍼作	황정순
7	1983년 4 : 16, 17	“봄해로에디” 피터웨퍼作 (신입생 환영)	홍여석
28	1983년 6 : 20, 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웨렌마트作	김영덕
29	1983년 10 : 7, 8	“트레버” John Bowen作	오정열
8	1984년 3 : 8, 9	“개인적 소공간” N. Holand作 (신입생 환영)	김인보
30	1984년 5 : 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作	오세환
31	1984년 10 : 11, 12, 13	“변천소” John Stoltenberg PD	이용섭
32	1985년 5 : 9, 10, 11	“벤틴글” Maxim Gorky	이용섭
9	1985년 7 : 20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신입생 환영)	화승민
33	1985년 11 : 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노·파레스키作	줄기병
10	1986년 3 : 17, 18, 19	“인생의 집” 현직·임생作	김정은 워싱턴
34	1986년 6 : 4, 5, 6	“에우수스” “EQUUS” 피터·웨퍼作	하승민
35	1986년 9 : 11, 12, 13	“코뿔소” E. 이오네스코作	줄기병